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운* 의원을 만나다

이번에는 수 년 전부터 '기적의 도서관'과 '진중도서관' 운동에 앞장서 오다가 최근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김재운 의원을 만났다. 김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발의하고, 문화정책포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편집자 주

Q 17대 국회의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도서관문화 지면을 통해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간의 근황과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경황이 없습니다. 아침 7시반 조찬모임부터 시작해서 밤 열시 넘도록 모임과 행사가 있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더구나 제 경우는 지역구가 제주도이다보니 일정이 너무도 빡빡합니다. 모두 다 참석할 수는 없고 해서 그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고쳤으리라 믿습니다. 국회라는 곳이 본질적으로 이해타함과 갈등을 조정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곳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그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문화정책에 관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정통하게 다룰 수 있는 대상들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Q 7월 14일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걸로 압니다. 발의하시게 된 이유와 특히 문광위원인데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을 제출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부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던데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원래 제 일차적 관심사는 도서와 출판 분야입니다. 마침 선거운동 기간에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장차 입법과정에 협조하시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후 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속한 단체에서 만들었다는 법안을 갖고 오셨

* 17대 국회의원, jayyun415@naver.com

습니다. 입법보좌관과 함께 법안을 다듬어 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도서관법으로부터 학교도서관법을 분리시킨 법을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을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과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하고, 둘째,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학교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 자체보다는 법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법 실효성의 관건이 됩니다. 예산이 관련되는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긴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정보화시대의 매우 중요한 생존전략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정, 특히 학교도서관 예산의 우선순위는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미래전망을 반영합니다.

Q 김 의원님은 ‘기적의도서관’으로 도서관계에 잘 알려져있는데요, ‘기적의도서관’에 대한 최근 소식도 접하고 계시는지요? 일부 부정적 소식도 있던데, ‘기적의도서관’ 세우기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기적의도서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요?

A 아마 지금까지 일곱 군데가 개관하고 한 곳에서 착공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도서관에서 운영방식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와 예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에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만, 기적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의 모범사례들 중의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지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적의도서관 자체가 기적을 일구어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책임은사회만들기국민운동 측에서 어찌 보면 과도하다싶을 정도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건물만 번듯하고 내용은 부실한 도서관”으로 전락한다면 그것도 기적의도서관에 대한 배신입니다.



▲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때 감사패 수상 모습(맨 왼쪽)

Q 김 의원님은 원래 출판 전문가이시기도 하신데 출판산업의 전망, 출판산업을 도서관과 연관지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A 출판산업이 지속적인 경제불황, 독서인구 감소, 동네서점 폐점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출판산업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지적 인프라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문화의 시대, 지식정보화의 시대에 책과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이어야 합니다. 출판산업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지어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정이 관건이겠으나 앞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재정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지는 자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책, 출판, 도서관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입니다.

Q 최근 국회 내에 문화정책포럼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서는 문화정책 포럼에 소속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포럼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국회문화정책포럼의 본래 사업목표는 문화예술, 언론, 관광, 도서관, 출판 분야 등의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개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현장여론 수렴 등 다양한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이를 통하여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을 담보해내고자 합니다.

Q 얼마 전 이미경 문화관광위원장께서 도서관특별지원법을 마련해서 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도서관법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이미경 의원의 도서관특별지원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성안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의 취지를 미루어 짐작컨대,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광부에서 추진 중인 도서관법 개정안이 분법화의 추세를 반영하는 등 이전보다는 나아진 느낌이 없지 않지만 양자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제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별도로 제정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정리될 예정인 만큼 독서진흥과 관련된 법이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진흥과 출판산업이 밀접한 만큼 양자를 연결지어 고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Q 도서관계에도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도서관계 현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의회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의원으로서의 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A 도서관계의 현안중의 하나는 아마 저작권 문제일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국제적 압력과 더불어 첨예해지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의 힘이 한 사회 혹은 인류의 장래를 좌우하게 되는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합니다. 도서관은 저작권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 만화 공공대여권 등 서둘러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도서관의 핵심인 전문사서 양성과 활용, 신분보장에 따른 문제들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제도의 미비,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의 관할 문제도 도서관의 본래적 취지와 역할에 맞추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도서 출판 전문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작금의 도서 출판 분야를 포함한 우리 문화계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바쁘신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해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KIA

